

민선 8기 전남 '호남 청년 핵심리더' 양성한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 출범 2026년까지 1200명 육성 '마리안느·마가렛' 정신 교육

전남도는 지난 11일 고흥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책임질 청년 핵심 리더 1200명 육성을 목표로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출범시켰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민선8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대표 공약사업이다.

전남을 넘어 세계로 도약을 준비하며 대한민국 미래사회를 선도할 청년을 발굴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리더 양성사업이다.

지역 청년을 모집해 각 분야 최고 권위자를 초청해 강연하고 호남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매년 3기를 운영, 기수당 100명씩 총 1200명의 청년 리더를 육성한다. 올해는 '전라도 혼과 정신'을 주제로 운영된다.

김영록 지사와 공영민 고흥군수, 박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공영민 고흥군수, 청년 대표 등이 지난 11일 고흥 도양읍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 연수원에서 열린 제1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출범식에서 손 펼침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준 도의원, 청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자문단 위촉 수여, 비전 영상과 선포·다짐, 도지사와 청년 간 소통간담회,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출범식 후 김지사는 제1기 청년 아카데미 교육생과 소통간담회를 통해 '아카데미의 운영 방향', '청년 일자리 지원', '청

년 거주비 지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청년층 지원시책을 소개했다.

전남 청년의 미래 준비와 이를 뒷받침할 도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행사에 참가한 박재우 청년 공동대표는 "호남 청년 아카데미에서 리더십, 팀워

크, 의사소통 등 고품질 교육을 통해 뛰어난 역량과 창조력을 가진 청년이 많아 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호남 청년들이 불의에 맞선 의로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세계로 도약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전남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범식 후 김영일 아주대학교 교수가 제1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첫 강사로 나서 '도전의 심리학'에 대해 특강을 했다.

1기 아카데미는 지난 40여년간 한센인을 돌보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테마로 오는 4월 22일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1회 4시간) 교육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2기는 '평화와 자유'를 테마로 5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다.

3기는 '충과 의'를 테마로 9월9일부터 11월25일까지 장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5년까지 순천과 무안에 거점별로 '전남도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해 청년의 꿈 실현을 돕는다.

센터에선 전남지역 청년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박간재 기자

광주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난방비 지원 확대

취약계층 20만원 상당 연료비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광주시 종합 주거복지센터가 12월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60가구이던 연료비 지원가구를 올해는 120가구로 늘렸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광주주거복지센터는 그동안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료, 연료비,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주거비 직접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어 연료비 지

원 가구 수를 두 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연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광주주거복지센터 개소 이후 가구당 각 20만원 상당의 연료비를 현물 지원(연탄, 경유 등) 해왔으며 지난해 말까지 190가구에 연료비 지원을 완료했다.

정민근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례적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이만 확대 지원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복지사업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1577-7296)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수 기자

강 시장 "그린벨트 해제총량 제외 대상에 군공항 포함"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다. 회의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총량 개선을 제안한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우 광역권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제외했는데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공항 이전 부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해제가능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과 정부가 관리하는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된다.

광주 군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지만 그

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실질적으로 광주내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해져 신규산단 조성 등 지역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해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강 시장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2차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기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결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지 기자

광주시, 올 출생가정 상생카드 추가할인... 상시 10%

광주시는 출생가정의 경제적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광주상생카드 추가할인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광주시에서 출생신고한 가정이다. 단태아 출생 시 부모 중 1인, 다태아 출생(2명 이상) 시 부모 2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할인은 기존 7%에 3%를 더해 총 10%이며, 기간은 연말까지다. 명절 특별할인(10%)과 1인당 총제한도(50만원)는 기존과 동일하다.

신규 신청자는 첫 달의 경우 신청일의 다음 달 10일부터, 그다음 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아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기존 출생신고 가정은 오는 15일부터, 신규 출생신고 가정은 출생신고 시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광주시 및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미리 작성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박상지 기자

전남도 '목포항구' 등 대표축제 10개 선정... 2000만원씩 지원

축제 전국화... 컨설팅·홍보 등

전남도가 전국 명소로 자리매김할 대표 축제 10개를 선정,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12일 전남의 대표 축제 10개를 선정, 축제당 2000만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전문가 축제 컨설팅, 축제현장 평가단 운영, 다양한 홍보 지원 등 다각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전남도 대표축제는 △목포항구축제 △여수거북선축제 △광양매화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해남미남축제 △무안연꽃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합평)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황룡강노란꽃잔치(장성)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다.

이 가운데 목포항구축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 공간, 퍼레이드, 공연 등 주민 주도형 축제로 개최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관광객에게 드레스와 연미복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스포츠댄스 선수의 지도로 왈츠 공연을 펼치는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관광객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합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축제 입장료의 일부를 축제 쿠폰으로 발행,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선정 10대 축제들은 주민 참여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의 대표축제는 지난 9일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위원들의 발표평가 점수와 2022년 축제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해 선정했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에 보상비 지급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전국 최초로 203명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

지원금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시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개월 동안 1주 5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만3000원을, 1주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2만6000원을 연차보상비로 책정해 연간 최대 31만2000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14일 오전 10시부터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박상지 기자

전남도, 청년정착 돕는 일자리 창출... 21개 사업 본격화

전남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정착을 돕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 활성화를 인구감소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신규로 선정된 7개 사업을 포함한 21개 사업을 통해 올해

1900여 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기업엔 1인당 연간 240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 등 직무 교육비 등을 2년간 지원한다.

또 3년 차 정규직 전환 시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청년에게 직접 지원한다. 창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와 7년 이내

의 창업자에게 창업 준비, 운영비, 공간 임차료 등에 2년간 3000만원, 3년 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인건비 2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남도는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신규로 선정된 7개 사업을 2월 말까지 추진하기 위해 참여기업 200개사와 청년 근로자 350명을 선정한다.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은 전남도 일자리통합정보(www.job.jeonnam.go.kr)를 참고해 전남도와 수행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최황지 기자